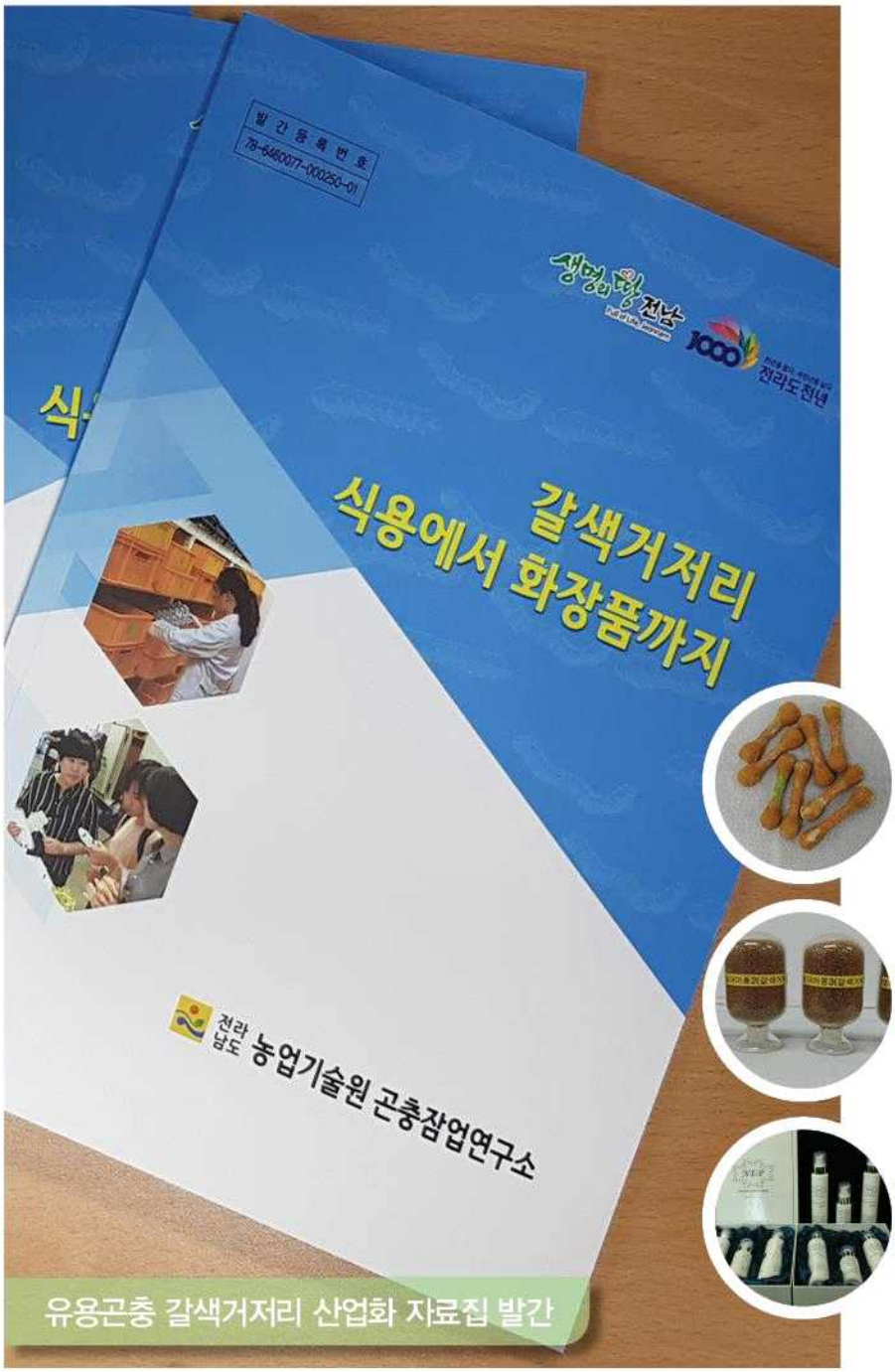
2018년
5월 넷째주

VOL. 185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May

주간 전남농업



주간 날씨정보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24일부터는 대체로 맑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동물복지 기능성 계란 생산 기술 연구 박차

정책동향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목장 앞 탁 트인 초원에서 동물 친구들과 뒹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 5

-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24일부터는 대체로 맑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2~16도, 최고기온 : 22~26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1~5mm)보다 조금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 6

- 토마토 출하 및 가격전망
- 애호박 출하 및 가격전망
- 오이 출하 및 가격전망
- 참외 출하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9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3

- 지역특화 가공식품 중국 수출전략 상담회 개최
- ’18. 4월까지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율 29%로 역대 최고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6

- 전남농업기술원, 유용곤충 갈색거저리 산업화 자료집 발간
- 전남농업기술원,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 공급
- 전남농업기술원, 동물복지 기능성 계란 생산 기술 연구 박차
- 전남농업기술원, 동해피해 유자나무 관리 지금부터
- 전남농업기술원, 밀 · 보리 붉은곰팡이병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해요
- 잠깐! 콩 씨뿌리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우람콩, 이렇게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
- 여름 전, 인삼 병 방제 서둘러야
- 교미교란제, 설치만 제때 해도 낙과 피해 줄어요!

6. 정책 동향 ····· 26

-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28

- 곡성군, 곡성멜론 올해 첫 출하
-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 화순군, 친환경벼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 장흥군, 농가소득 효자 작약 벼농사 5배 수익

8. 해외 농업정보 ····· 32

- 2018년도 캐나다 식품 트렌드 동향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5. 21.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36

- 목장 앞 탁 트인 초원에서 동물 친구들과 뒹굴~!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9.5℃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5.5℃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14.3℃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1.8㎜

목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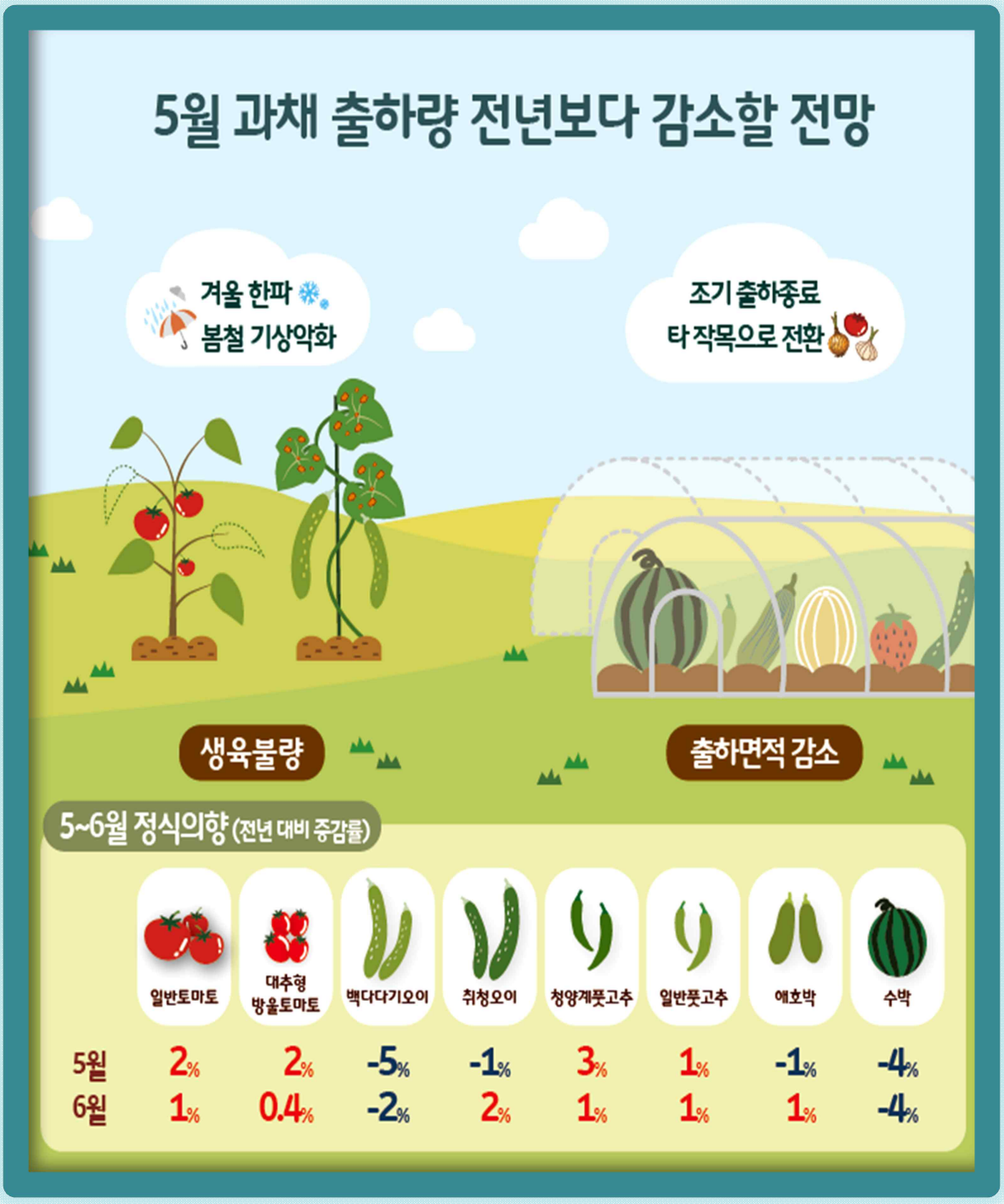
- 평균기온 : 18.6℃
  (평년대비 1.0℃ 높음)
- 최고기온 : 23.5℃
  (평년대비 1.0℃ 낮음)
- 최저기온 : 14.6℃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2.0㎜

여수시

- 평균기온 : 18.7℃
  (평년대비 0.5℃ 높음)
- 최고기온 : 22.6℃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15.5℃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4.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일반토마토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면적은 전남, 경북, 충남에서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울토마토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2% 증가하나, 봄철 기상악화로 단수가 2%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면적은 경기, 강원, 충남에서 일반토마토, 원형 방울토마토와 시설봄배추, 오이 등에서 품종·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전망

- 5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8,200원) 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9천~1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 5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전년(1만 1,500원)과 비슷한 상품 3kg 상자에 1만~1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 5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5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8,700원)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1만 1천~1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오이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5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나,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9%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만 8,200원)보다 높은 상품 100개에 2만~2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 5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만 400원) 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6천~1만 9천원으로 전망된다.

참외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과 비슷할 전망

- 5월 참외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 하여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중순까지는 2화방 참외 출하가 계속되어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월 하순에는 4월 상순 저온으로 인한 생육 지연과 화방교체로 중순보다 출하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과 비슷할 전망

- 5월 참외 도매가격은 전년(3만 8,800원)과 비슷한 상품 10kg 상자에 3만 7천원~4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5 . 21. 기준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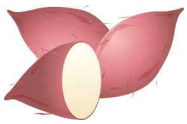
쌀(일반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kg	44,520	44,52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720	31,800	39,600	↑ 12.4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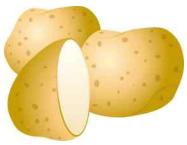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35kg	180,200	178,200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6,850	172,000	155,000	↑ 16.3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44,000	43,600	↑ 6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900	27,000	27,693	↑ 58.9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kg	54,600	59,400	↑ 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3,650	53,700	39,967	↑ 36.6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6,000	5,860	↑ 4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4,050	7,097	↓ 15.5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8kg	5,300	6,100	↑ 5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50	3,320	5,872	↓ 9.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0개	32,667	32,667	↑ 2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417	26,167	26,426	↑ 23.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개	18,000	16,400	↑ 3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50	12,950	11,543	↑ 55.9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60kg	1,150,000	1,150,000	↑ 11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46,000	718,667	↑ 60.0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35,600	41,200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350	43,500	41,350	↓ 13.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kg	145,000	14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0,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kg	15,600	17,800	↓ 2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900	20,100	15,953	↓ 2.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0kg	35,400	37,40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400	33,750	32,983	↑ 7.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kg	1,440	1,480	↓ 1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0	1,615	1,796	↓ 19.8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5kg	21,800	23,800	↑ 1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450	19,250	19,493	↑ 11.8

참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37,600	45,200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3,700	45,400	36,707	↑ 2.4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22,200	23,800	↓ 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150	22,550	20,923	↑ 6.1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5kg	19,000	23,200	↓ 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00	19,750	16,220	↑ 17.1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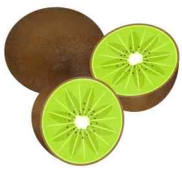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38,400	39,0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200	39,500	44,189	↓ 13.1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5kg	36,400	36,200	↓ 1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800	44,200	46,773	↓ 22.2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kg	-	34,8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00	-	29,260	-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30kg	498,000	498,0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19,000	531,333	↓ 6.3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kg	13,600	14,000	↑ 1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00	11,650	12,200	↑ 11.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2kg	7,800	7,600	↑ 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900	7,400	8,040	↓ 3.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0g	7,967	8,014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67	7,816	6,888	↑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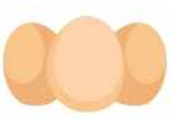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00g	1,842	1,850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8	2,224	2,046	↓ 10.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kg	4,760	4,937	↓ 1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12	5,798	5,543	↓ 14.1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30개	4,343	4,366	↓ 4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4	7,983	6,095	↓ 28.7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1)	1주일전 (5/14)	전년대비
1L	2,516	2,516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6	2,528	2,532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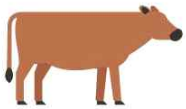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5. 21. 기준 / 단위 : 천원)

한우(6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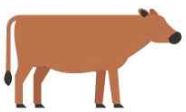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68	5,630	5,293	↑ 0.7	↑ 7.1
거세	7,015	6,667	6,390	↑ 5.2	↑ 9.8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56	3,262	2,962	↓ 0.2	↑ 9.9
수	4,037	4,045	3,727	↓ 0.2	↑ 8.3

육우(6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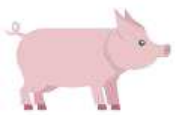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04	3,518	2,66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4	↑ 31.6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76	276	1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 42.3

돼지(1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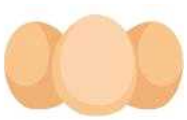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6	402	42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	↓ 3.3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455	1,545	2,47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8	↓ 41.1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68	903	2,10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9	↓ 58.8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134	2,487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4.2	↓ 20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지역특화 가공식품 중국 수출전략 상담회 개최

- 중국 유통업체 전문가 초청, 가공품 수출 상담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지역 특화 가공식품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유통 전문업체인 웨이디엔·JHE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9일 농업기술원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 농업기술원과 JHE 글로벌 기업은 금년 3월 전라남도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번 상담회에서는 KOTRA 수출관련 사업 안내 및 지원시책에 대한 특강, 보해양조 중국시장 맞춤형 현지화 전략 성공사례 발표, 중국의 가공식품 소비트렌드와 상품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참가 경영체의 전시 가공상품 분석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1:1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 신청한 업체(경영체)에 대해서는 중국 유통업체(웨이디엔, JHE 글로벌) 전문가가 직접 가공품을 보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18. 4월까지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율 29%로 역대 최고

- 중국 유통업체 전문가 초청, 가공품 수출 상담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증가 원인을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수출(95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 아세안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층 확대와 중국시장의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가 요인

-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421백만달러(29%↑)로 인삼류(64백만달러, 39%) 및 과실류(89백만달러, 25%)가 수출을 견인하였다.
- 인삼류는 중화권 뿌리삼 수요증가, 미국 대형마트(Costco) 등에 음료제품 입점확대, 아세안 및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관심 증대 등이 호재로 작용
- 과실류는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망 구축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의 결과 베트남 시장에서 배와 중국시장에서 유자차가 큰 폭 증가

  * 배 : 베트남 소비자의 소득증가로 기존 선물용 대과 위주 소비에서 중·소과 중심의 가정용으로 소비가 확대

  ** 유자차 : 중국 시장 수출회복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카페(85℃) 등 식자재(B2B) 신규 판로 개척과 양국 관계 회복에 따른 한국식품 소비심리 회복

- 특히, 신선농산물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는 인삼음료·파프리카·김치·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 기능성 및 건강식품 인기로 인삼음료(3백만달러, 97.5%↑), 수출단가를 회복한 파프리카(32, 6.8%↑), 식자재 수요 증가세인 토마토(4, 15.2%↑)를 비롯해 일본 현지 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한국산 김치(20, 29.3%↑) 수출도 증가

아세안 시장 수출증가 요인

- 아세안 시장은 금년 1월 이후 제1의 농식품 수출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474백만달러(18.6%↑)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한류스타(이승기 등) 팬 사인회 및 박항서 감독과 함께한 농식품 홍보행사 등으로 한국 농식품의 안전·건강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 동남아 권역 대표 온라인 몰인 Qoo10 등 주요 온·오프라인 집중 판촉 등으로 베트남(152백만달러, 19.3%↑), 태국(88, 43.1%↑)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특히 아세안 권역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은 배(7백만달러, 144.6%↑), 음료(8, 32.5%) 등과 조제분유(3, 12.4%) 수출이 증가

중국 시장 수출회복 요인

- 중국은 '17. 4월 사드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 누계기준)였으나,
- '18. 4월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17. 4월 66백만 달러→'18. 4., 85)하면서, 4월 누계기준으로 對중 농식품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5.5%)로 줄었다.
- 유커들의 내한(來韓) 허용 등 한·중 긴장 완화 국면에 따른 한국 상품 소비심리 회복과 조제분유·유자차·생우유·음료 등 주요품목 실적 반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 김민욱 수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추세가 유지되도록 시장개척활동 지원, 현지 물류시스템 개선 등 수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유용곤충 갈색거저리 산업화 자료집 발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갈색거저리의 대량사육, 사료화, 가공제품 개발 등 산업화 성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 이 책은 △갈색거저리의 생태, △분변토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개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성분, △닭 사료 개발, △화장품 개발까지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분야를 담았다.
-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무료로 농가에 배부하고,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jares.go.kr)를 통해 PDF로도 제공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 공급

- 전남도 12개 시군 80여 양잠농가에 15일과 18일 누에씨 공급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봄철 누에사육기를 맞이하여 우량 누에씨 600여 상자를 5월 15일과 18일 2차에 걸쳐 도내 양잠농가에 공급하였다.
- 올 봄에 공급할 누에씨는 2017년 봄에 생산돼 철저한 선별 및 온·습도 하에서 1년 동안 관리한 것으로 곤충잠업연구소에서는 누에 알깨기 작업을 미리하여 농가에 인도된 다음날부터 즉시 사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공급한다.
- 공급량은 작년 수요조사에 의해 확정된 백옥잠 품종 600여 상자(상자당 알 2만개)로 가격은 상자당 24,000원에 전남도 12개 시군 약 80여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 전남도는 2004년부터 곤충잠업연구소에서 양잠농가에 우량 누에씨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누에를 사육해 철저한 소독과 영양 관리로 우수한 누에씨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동물복지 기능성 계란 생산 기술 연구 박차

- 아마씨와 풀사료를 이용한 오메가3 강화 계란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는 동물복지 기능성 계란 생산기술 개발에 나섰다.
- 동물복지 계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철저한 인증 기준을 거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계란의 질은 어미 닭의 사육 환경과 먹이에 따라 달라진다.
- 특히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사료는 계란 속 오메가 함량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통, 일반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는 대부분이 옥수수와 대두박인데, 여기에 특별히 다른 사료를 첨가하지 않는 이상 계란 속 오메가 함량의 비율은 불균형 되기 쉽다. 동물복지 계란의 오메가 비율 역시 일반 농장의 계란처럼 첨가되는 사료의 영향을 받기 쉽다.
-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옥수수 사료일 경우 60:1, 대두박은 9:1 정도 되는데, 닭에게 옥수수와 대두박 위주 먹이는 계란의 오메가6 함량을 높여 오메가6와 오메가3 사이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다.
-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함에 있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1이다. 오메가 비율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이 발생하기 쉽다. 균형 잡힌 오메가 섭취를 위해서는 닭 먹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축산연구소에서는 옥수수 및 대두박 위주 먹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메가3 함량을 높여주는 아마씨와 풀사료를 이용하여 계란 속 오메가 비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육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동해피해 유자나무 관리 지금부터

- 유자 동해피해 과원의 꽃솎기 선택이 아닌 필수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지난해 겨울 유례없는 한파와 가뭄으로 유자나무 동해 피해가 극심한 고흥지역 유자과원의 조기회복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고흥지역 유자나무는 큰 가지와 유목이 고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제 개화가 한창 시작되고 있는데 낙엽이 심한 나무에서 꽃이 지나치게 많이 착화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수출 효자 작목인 유자과일의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를 받지 않은 유자나무는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피는 꽃인, 유엽화(有葉花)가 적당히 발생하여 고품질의 유자 생산이 가능하지만, 낙엽이 심한 나무는 충실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꽃이 피는 직화(直花)가 많이 발생한다.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수세저하가 심각해지고, 심할 경우 나무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
- 효과적인 꽃솎기 작업을 위해서는 △꽃이 많은 가지를 절단 전정하여 꽃이 지나치게 많이 달리지 않게 해주고 △낙엽피해가 심했던 과원은 착화된 꽃의 70% 이상을 제거해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 또한 겨울은 동해를 받은 가지의 생존부위와 죽은 가지가 확실히 구분되는 시기여서,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도포제를 피복하여 새 가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밀·보리 붉은곰팡이병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 배수로 정비와 적용약제 살포 등 적기 방제 서둘러야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밀, 보리의 출수기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이 지속되어 붉은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발생초기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보리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후사리움(Fusarium graminearum)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보리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이전까지 비가 잦고 95% 이상의 상대습도가 3~5일간 지속될 경우 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 밀과 보리의 주재배지역인 전남은 출수기 무렵인 4월 중·하순에 강수량이 83㎜로 전년(31㎜)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많았고, 평년(58㎜)에 비해서도 1.5배 정도 많아 기상여건이 병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약제방제와 포장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병 방제를 위해 보리밭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삭이 패는 시기나 병 발생 초기에 캡탄 등 적용약제를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확 후에도 병원균이 계속 자랄 수 있으므로 즉시 건조시켜 병든 씨알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해요

- 이르면 저온 피해·품질 저하, 늦으면 생육 기간 짧아 수량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큰 일교차 때문에 저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알맞은 모내기 시기를 제시했다.
- 중간모를 기계로 모내기한다는 기준에서 중부 지역은 △조생종 5월 19일~6월 15일 △중생종 5월 10일~6월 15일 △중만생종 5월 15일~6월 10일을 적합한 때로 예측했다.
- 호남 지역은 △조생종 6월 5일~6월 25일 △중생종 5월 25일~6월15일 △중만생종은 5월 25일~6월 10일,
- 영남 지역은 △조생종 5월 20일~6월 25일 △중생종 5월 15일~6월 15일 △중만생종은 5월 15일~6월 10일이 모내기하기 알맞은 때로 전망했다.
- 지역별 모내기 시기에 관한 세부 정보는 거주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으로 인해 초기 자람이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자라는 기간이 길어서 양분소모가 많다.
- 잡초와 병해충 발생률도 높고, 특히 고온기에 벼가 익어가면서 호흡량이 늘어나 저장양분의 소모도 많아지기 때문에 쌀 단백질 함량이 늘고 벼를 찧었을 때 쌀알이 깨지는 등 쌀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 반면 너무 늦게 할 경우,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벼 알의 수가 줄고, 벼를 찧었을 때 하얗게 변하는 쌀알이 쉽게 나타난다.
- 생육 후기에 온도가 낮아질 경우 벼 알의 익은 정도가 떨어져 수량과 품질도 낮아진다.
- 그러나 어린모로 모내기를 할 때에는 중간모와 비슷한 시기에 이삭이 팰 수 있도록 중간모를 심는 시기보다 약 3~5일 정도 빨리 심어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잠깐! 콩 씨뿌리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가급적 보급종 및 신품종 선택... 반드시 종자 소독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콩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씨를 뿌릴 때 주의할 점들을 소개했다.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품종 선택이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씨뿌리는 시기를 파악하고 종자의 크기에 맞춰 심는 거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 품종은 생산성과 용도별 가공적성, 유통 등을 고려해 보급종 대원콩, 태광콩, 대풍, 선유, 연풍, 풍산나물콩(6품종)과 최근에 육성한 새로운 품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 농가와 가공업체는 새 품종 중 선풍과 대풍2호 등 선풍, 대풍2호, 대찬, 미소, 소청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자는 건강하고 병이 없는 것을 구입해 반드시 소독해 사용한다. 종자 1kg에 소독제(베노밀)를 4~5g 정도 골고루 묻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 씨뿌림 시기는 6월 상순부터 하순이 적당하지만, 앞 작물과의 작업 편리성이나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중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조금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 늦게 씨를 뿌리면 수량이 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7월 상순이 지나면 수량 감소율이 20% 이상 높아진다.
- 이랑과 포기 사이 거리는 알이 큰 장류·두부용의 경우 70× 15cm, 알이 작은 나물용 콩은 60×10cm 정도가 알맞다. 그러나 심는 시기와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일찍 심는다거나 거름기가 많은 토양은 거리를 넓게 하는 것이 좋다.
-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나 습해를 막기 위해 씨뿌림 전에 50~80cm 깊이의 배수로를 논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초제는 벼에 안전한 것을 고르고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초제 관련 약제 정보나 사용법은 작물과 시기에 맞춰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http://www.nongsaro.go.kr)을 참고해 적용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우람콩, 이렇게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

- 남부 지역, 이랑 당 두 줄씩 파종... 순지르기는 복엽 4~6잎 때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남부 지역의 논에서 기계 수확에 알맞은 우람콩 재배 시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파종 방법을 소개했다.
- 우람콩은 초기 생육이 왕성해 파종이 빠를수록 쓰러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6월 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파종은 이랑 너비 70cm, 고랑 너비 40cm, 포기 간 거리 30cm, 이랑 당 두 줄씩 한다.
- 이랑 당 두 줄씩 파종하는 것이 한 줄로 하는 것보다 콤바인의 흔들림이 적고 풀 베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우람콩은 키가 크고 최하위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수확에 유리하며,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이모작으로 심을 수 있는 다수확 품종이다.
- 파종을 일찍 하거나 너무 촘촘히 하면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파종 적기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콩 복엽(처음 생겨난 잎 다음 마디부터 생기는, 한 잎자루에 3개씩 붙어 있는 잎)이 4~6잎일 때 순지르기를 해주면 쓰러짐을 줄일 수 있다. 순지르기가 너무 늦어지면 쓰러짐 경감 효과가 없고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 전, 인삼 병 방제 서둘러야

- 인삼 점무늬병·탄저병 발생 우려, 시설물 관리·배수로 정비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해 인삼 재배지에서 점무늬병과 탄저병 발생이 많을 것으로 우려돼 농가에서는 미리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점무늬병과 탄저병은 장마 전후로 발생이 늘기 때문에 그 전에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면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이병들은 장마철 잎이 수분에 장시간 노출돼 젖어 있거나 해가림 설치가 불량한 포장에서 빗물이 들어와 심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비가 새지 않게 해가림시설과 방풍시설을 정비해 장마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등록된 살균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 들어가 『농업기술-농자재-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일한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약제저항성이 생긴다. 따라서 작용기작이 다른 전용 살균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번갈아 뿌려주는 것이 좋다. 작용 기작은 시판 약제 포장지 윗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 인삼 점무늬병은 잎, 줄기, 열매 등 지상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공기전염성병으로 전 생육 기간 동안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 높은 습도로 인해 발병이 많아진다.
- 초기에는 잎과 잎자루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작은 갈색 병반이 생기고 줄기에 흑갈색의 큰 병반이 생기며 병이 커진다. 전염된 줄기는 오그라들고 부러지며, 병반 위에 검은색의 포자가 생겨 바람에 의해 쉽게 이동한다.
- 인삼 탄저병은 잎, 줄기, 열매에 발생하는데 주로 잎에 발생이 심하다. 특히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병 발생이 증가한다.
- 초기에 연한 갈색 반점이 생겨 커지면서 황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한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쉽게 떨어진다.
- 병원균의 포자는 물과 함께 이동하며 토양 표면에 있다가 빗방울 등에 의해 줄기 또는 잎으로 전염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교미교란제, 설치만 제때 해도 낙과 피해 줄어요!

- 9월 수확, 5월 하순엔 설치해야 복숭아순나방 교미 방지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복숭아순나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9월 이후 수확하는 과수 품종은 5월 하순에 교미교란제 설치를 당부했다.
- 복숭아순나방은 애벌레(유충)가 복숭아·사과·배 과실을 파먹고 들어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과수의 가장 골치 아픈 해충이다. 방제를 소홀히 한 과수원은 피해과율이 20%가 넘는다.
- 과수 농가들은 친환경적 방제 방법으로 과수원에 인공 성페로몬이 들어간 교미교란제를 설치해 나방의 교미를 막는데 이용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는 유효기간이 있는 시판 교미교란제의 경우, 설치한 지 4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 3월 하순에 교미교란제를 설치 후 15일 간격으로 수거해 유효성분(성페로몬)의 방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7월 하순까지만 방출량이 많고 이후에는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다.
- 따라서 9월 이후에 수확하는 복숭아·사과·배 과원은 5월 하순에는 교미교란제를 설치해야 한다.
- 교미교란제는 복숭아순나방 성충(어른벌레)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미리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성충은 해마다 3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4세대에 걸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성충은 5월 중순까지 발생하고, 2세대 성충은 6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5월 하순에는 설치해야 9월 하순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산란계육용오리 농가 대상 30일까지 시군서 접수 -

- 전라남도가 산란계육용오리 농가를 동물복지형 선진 축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은 고병원성 AI의 잦은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개소와 육용오리 1개소, 총 3개소에 지원된다. 산란계 사육시설은 평사형과 다단형(Aviary) 각 1개소로 나눠 추진된다.
- 지원 사업비는 개소 당 총 5억원으로, 보조 4억원, 자담 1억원이다.
- 신청 자격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지원은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햇빛 투과시설, 닭 홰대산란상, 오리 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에 이뤄진다.

* 출처 : 전라남도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ha)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 모내기 시기~10월말까지

-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금년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곡성군, 곡성멜론 올해 첫 출하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명품 브랜드 구축 -

- 곡성군의 대표 소득 작목이자 대한민국 NO.1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곡성멜론이 지난 17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 출하된다.
- 곡성군의 대표 브랜드인 『기차타고 멜론마을』은 2014~2015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백화점과 수출 직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곡성멜론은 곡성멜론(주), 곡성농협 농산물선별장(APC)에서 최첨단 비파괴 당도 측정 선별 라인을 통해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치며, 해외 수출과 전국 대형 백화점 납품,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국내외 명실상부한 명품멜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 특히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곡성멜론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 시장개척에도 우위를 선점하여,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곡성군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

- 2018년 2개소, 2019년 2개소 추가, 개소 당 1,800억 투자 -

- 고흥군은 농식품부 주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예비계획서 신청 등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대단위 종합 산업단지로,
-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7월말 2개소, 2019년 2개소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 전남도는 5월 25일까지 시군별 예비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평가를 거쳐 최종 시군을 선정하고 7월 13일까지 공모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 혁신밸리 조성규모는 개소당 20ha기준으로 단지 내 세부시설은 스마트팜 단지(10ha), 임대형 스마트팜(7.5ha), 보육센터(1.5ha), 산지유통센터 (1ha), 테스트베드(4ha)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총사업비는 부지조성비 별도로 1,800억원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화순군, 친환경벼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 2018년 친환경 농업예산 174억원, 2020년 유기농면적 879ha 전망 -

- 화순군은 총 벼 재배면적 4,500ha 중 1,025ha, 22%를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이 27.6ha, 무농약이 997.4ha로 무농약 비중이 높으며, 무농약재배를 3년이상 장기적으로 재배한 면적이 그 중 90%에 달하며 무농약벼는 일반벼에 비해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해 해마다 친환경 벼 생산을 고민하게 만든다.
- 화순군은 친환경재배를 위해 육묘용 상토부터 새끼우렁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공동방제지원, 생산장려금,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친환경재배를 하면 농자재비용을 군에서 90%이상 지원하고 있다.
- 무농약 유기전환을 2년은 거쳐야 완전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유기농전환을 위해 3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유기농 면적을 확대 할 수 있다.
- 유기농으로 구조적 전환을 위해 2018년부터는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유기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무농약 6회차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생산장려금 또한 유기농·유기전환농가만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는 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당 유기농 35원, 무농약 25원이며, 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는 ㎡당 유기농 120원, 유기전환 100원, 무농약 70원, 생산장려금은 ㎡당 24원이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지원을 유기농은 ㎡당 100원, 무농약은 70원 지원한다.
- 화순군 유기농 벼 면적은 2015년 24ha, 2016년 25ha, 2017년 27.6ha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무농약 유기전환을 2017년 139ha 추진하였고, 2018년 852ha를 추진하고 있다.
- 따라서, 성공적으로 유기전환이 완료되면 2020년 화순군 유기농 면적이 879ha정도로 대폭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농가소득 효자 작약 벼농사 5배 수익

- 장흥군 용산면 송전리 약용작물 재배단지에 작약꽃이 만발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 꽃이 아름다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빈혈, 타박상 등의 약재로 쓰인다.
- 장흥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논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현재 장흥군에서는 50여 농가가 작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40ha에 이른다.
-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대비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로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 군 관계자는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관 작물로도 활용해 농촌체험 관광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8 해외 농업정보

2018년도 캐나다 식품 트렌드 동향

- 캐나다의 식품 트렌드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2017년도의 유니콘 프라푸치노(unicorn frappucino), 숯(charcoal) 아이스크림 등의 유행에 이어, 쉐터레인(Chatelain) 사이트는 2018년도에 유행하는 주요 식품 트렌드를 주요 식품 기관·기업들과 함께 조사하여 발표함.

슈퍼 라떼(Super Lattes)

- 2016년이 마차(matcha) 라떼의 해였다고 한다면, 2017년에는 디톡스 효과를 기대하는 검정 숯으로 만든 라떼와 검정색 식품이 부상하였음. 2018년에는 수퍼푸드 음료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색의 식품들이 다시 유행할 것으로 전망함. 새로 유행할 라떼는 유제품이 아닌 견과류 우유에 비트나 심황(turmeric), 브루 마직(blue majik, 해조류 성분) 등 수퍼 푸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든 것임.

지방 음식(Full Fats)

- 버터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니다(Butter is no longer evil)는 인식이 다시 유행할 전망임. 특히, 새로 유행할 버터 종류는 기(ghee)와 같은 정제버터(clarified butter)인데, 이들은 발화점이 높아 요리용으로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함. 기(ghee)는 인도 요리에 주로 쓰이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함. 포브스(Forbes)지에 의하면, 기는 100억 달러의 버터 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품목이라고 함. 홀푸드 마켓에서 판매하고, The Huntington Post에 2017년 식품 트렌드 목록에 오른 기는 저온에서 조리되는 동안, 우유고체가 지방과 분리·제거된 후 상온에서 락토스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됨.

진화한 가짜 고기(Better Fake Meat)

- 식품 업계는 2018년에는 식물을 기반(plan-based)으로 한 가짜 고기의 맛과 식감이 더욱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함. 식물성 스테이크와 식물성 버거들을 요리하는 토론토의 Mythology Diner레스토랑과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당근으로 만든) 모방 훈제연어요리(imitation lox)를 제공하는 밴쿠버의 Roots and Fruits 카페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동물성 식품들을 멀리하는 것이 더 쉬워짐. 헤모글로빈 성분을 더하여 식물성 재료들이 더 고기처럼 보이고, 비슷한 식감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개발됨.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요리(Instagrammable Eats)

- Eater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음식은 우연히 유행·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리뷰에 영향을 받으므로, 2018년도의 식품들은 더욱 포토제닉(photogenic)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사진을 잘 받기 위해서 식품과 요리의 색감이나 프레이트 장식 등이 더욱 화려해질 것이라고 예상함.

더 나은 식품점(Better Grocery Stores)

- 포브스지의 2018년 음식 트렌드 조사에서는 캐나다 식품체인점들이 2018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함. 예를 들면, 이태리 식료품·델리인 Eataly나 북미에 매장을 연 Food Halls 같은 체인들, 가공식품과 간편식으로 알려진 오타와의 Farm Boy는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 중임. Nations Fresh Foods도 새로 개장한 Nations Experience를 포함한 매장을 온타리오 남서쪽 4곳에 개장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음식 놀이동산(foodie amusement park)처럼 세계음식과 상점들을 선보이는 푸드 코트임.

아침에 케이크 먹기(Wake and Cake)

-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보일 수 있는 트렌드로, 슈퍼마켓 체인인 로브로(Loblaw)에 의하면, 먹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제했던 음식 중의 하나인 케익을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 유행될 전망이라고 함. 칼로리 많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될 것이라는 논리에 공감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함.
- 이외에도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뿌리부터 줄기까지(Root-To-Stem) 캠페인(동식물 식재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트랜스지방 등을 줄인 건강한 스낵, 손질된 재료들을 조리법과 함께 배달하는 밀 키트(Meal Kits) 시장, 꽃맛 식품(Floral Flavours) 등이 캐나다에서도 2018년 트렌드로 계속될 전망임.
- 시사점으로 미국과 함께 캐나다에서도 웰빙과 건강, 다양한 맛의 추구가 트렌드로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에서는 케익이나 버터향을 즐기며, 고기 맛을 대신할 식물성 상품 개발이 활발함. 한국의 콩고기와 같은 식물성 식품들과 건강한 해조 스낵 등을 개발, 수출한다면, 시장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5.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가뭄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계 밀 생산 중심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상승했다. 수출 수요는 약세를 보였다. 분석가들은 0~50만 톤을 예상 했었지만 미 농무부는 주간 밀 총 수출량을 19만 4,800톤이라 밝혔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출 제한 감소로 기술적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하락했다. 세션 초기에 기술적인 매도가 하락을 주도했다. 하락세가 이어짐에도 수출 강세는 유지되었다. 미 농무부는 주간 옥수수 수출량을 최대 75~120만 톤을 예상했고 집계된 수치는 115만 톤이라고 전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수출 수요 약세로 인해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미 농무부는 콩 수출량을 4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예상하였는데 전주 콩 수출량이 예상치 보다 낮은 50만 6,600톤에 달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목장 앞 탁 트인 초원에서 동물 친구들과 뒹굴~!

- 가정의 달 오감 만족 전국 체험 목장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족끼리 나들이하기에 알맞은 체험 목장들을 소개했다. 목장을 선택할 때는 여행 목적을 고려하면 더욱 좋다.
- **올림픽 열기를 다시 한 번** = 강원도 평창의 『보배목장』은 트랙터 타기, 소 젖 짜기와 함께 치즈·피자·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자동차 야영장과 놀이터, 꽃 산책길도 마련돼 있다. 올림픽 경기장과도 멀지 않아 지난겨울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다.
-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 제주의 『지헌목장』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치즈 늘이기, 피자·쿠키 만들기와 송아지 우유 주기, 건초 낙서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다양한 동물 만나려면** = 전남 영광의 『미르목장』은 치즈 만들기 체험과 강아지, 토끼, 산양, 말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
- **초지에서 여유 만끽하려면** = 충남 금산의 『이담산양목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우수 산지생태목장으로, 초지에 방목 중인 산양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모종을 심거나 감자를 캐며 농사체험도 할 수 있다. 야영장을 운영해 1박 2일 여행도 가능하다.
- **단체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 경남 사천의 『가나안목장』은 스트링 치즈와 피자 만들기, 초지와 유가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해 여럿이 나들이 가기에 알맞다.
- 자세한 정보는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산따라 길따라 낙농목장과 함께하는 전국여행』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단, 목장 사정에 따라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85